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15장(하나님의 크신 사랑)
※ 교 독 문54(시편126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87장(예수 앞에 나오면)
예배기도 1부 이경훈전도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복음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요한복음1:40-42..... 김한수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안드레처럼 ” 최세열목사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520장(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봉 헌 (3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시백기도회(월-금)	
전교인전도대회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전도사역팀의 안내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함시다.		찬 양 / 다 함 계		인도 : 담임목사	
* 1:40분에 모여 함께 기도한 후에 출발하며 전도 후에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기 도 / 말은이		에스겔 강해	
		본 문 / 갈라디아5:22,23		금요기도회	
		말 씬 / 최세열목사		이번 주간에는 작정	
		“성령의 열매-화평”		받기도회로 모입니다.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회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수	다 음 주 기 도	1부	이경훈전도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10월 김금자 안해숙 김장숙 최근배	다 음 주	1부	말 은 이
		11월 공영순 이영란 김귀례 한은미	성경봉독	2부	심재수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B	다음주 사라희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윤승호집사	
헌신찬양	금주 3 구 역	다음주	4 구역		

안드레처럼 / 요한복음 1:40-42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각 시대마다 거둬거둬 개혁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매 순간 순간마다 일어나야 할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전도축제는 시골벽적인 잔치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들을 기회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전도초청에 좋은 모델이 있다면 바로 안드레사도일 것입니다.

1.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라고 전하자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안드레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가까운 형제, 가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드레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6장을 보면 5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루해가 저물도록 말씀 듣는 재미에 빠져서 밥 먹는 시간도 잊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장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아이에게서 받은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안드레의 수고가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이번 전도초청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놓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 안드레는 헬라 사람을 몇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빌립을 찾았는데, 빌립은 이들을 안드레에게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명절에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유대의 관습을 넘어서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헬라인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해서 교회가 짐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억울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외면 받는 사람, 죽으려는 사람, 노인, 어린아이들이 곧 그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전도합시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성도와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주제 / 10. 행복한 전도자(2013.10.13)
제4과 행복한 전도자(사도행전 8:4-8절)

말씀 살피기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성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표적을 보고 한 마음이 되어 따름으로 사라마이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기쁨을 확신하고 행복한 전도자로서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6절) 2.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가져다준 기적은 무엇입니까?(7,8)

말 씬

전도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사망의 광산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매몰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인 전도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본문을 통해 빌립이 전한 복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된 것을 보고 전도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알아봅시다.

첫째, 빌립은 전도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어있어도 찾아내어 감옥에 보내고, 목숨을 빼앗는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전도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둘째, 전도는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편견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던 주님을 본받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며 걷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징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육신이 아픈 자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기쁜 일을 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결국 전도는 사마리아 성을 참된 기쁨이 넘치는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초대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기쁨은 기쁜 환경이어서가 아닙니다. 빌립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죽음 일보 직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을 주며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도 해결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빌립의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은 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빌립역시 행복 했습니다. 전도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전도자로서 삽시다.

말씀적용

1.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였던 치유의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전도를 통해 얻게 된 행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 후 당회로 모입니다.
2. 사도행전 전도축제 12주 85일간의 전도여행에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3. 가을 구역심방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오늘 찬양예배는 전교인 전도대회로 모입니다. 점심식사 후 1시40분까지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5. 제5차 작정밤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우들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기간:10.28-11.1.장소:1층 종합교육실 시간:오후8시)
6. 노회소식
 - * 여신도회 수원지구회 3차 모임이 29일(화) 오전10:30분에 광교호수 공원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이경훈 김선영 박경자 안해숙 이미령 서영자 정혜진 김선주 원혜경 윤종원 박윤희 임병호 김경희 김인순 박정일 박지영 강진숙 김한순 김상례 안진영 김홍영 김애자
- 감사헌금 : 김애자 노재의 김영란 신공님 김옥길 여순애 김동현 양희임 김지환 정혜진 유종란 무명 (일천번제)김동현
- 건축헌금 : 김애자 김옥길 여순애 임병호 김경희 권세갑 김금자 이득만 김한순 심문자 루디아 윤종원 안해숙
- 비전씨앗 : 황은상 박주한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한순	3	12,000		정정희	7	강은순	이영선	박정미	16	68,000	70	이영선
2	정정희	김한순	김한순	4	18,000	200	교 회	8	김순님	오복실	차소라	5	23,000	30	허 웅
3	이춘호	황경숙	박정일	4	18,000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3	11,000	100	김인순
4	김기희	최경선	김춘자	5	17,000	13	정선례	10	장영분	박현순					
5	이문순	원혜경	원혜경	9	32,000		윤종원	계					59	239,000	489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14	58,000	76	정순님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지혜로운 영주의 전도

독일 라인 강변에 대단히 멋진 성을 소유한 영주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덕이 있다고 칭찬받는 아들이 있었다.

하루는 그의 집에 영국의 귀족이 손님으로 초대되어 왔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있지 않다고 말하는 자였다. 그 성의 주인은 이 불신자 손님을 데리고 성의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다. 몇몇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영주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아들의 설계 작품이네요." 영주의 정원은 훌륭하고 고상하게 설계되어 꾸며져 있었으며, 마을의 집들 또한 아들의 설계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구경하고 난 불신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영주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것처럼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말이예요." "아니, 당신은 나의 아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소?" 그 불신자는 대답하였다. " 그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해놓은 일을 보니 그의 됴됨이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영주는 평소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던 차에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얼른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아들이 해놓은 일만을 보고도 내 아들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평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오.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납골당에 모신다. 때로는 고인의 유언을 받들어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기도 한다. 언젠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추모예배에 참석해 새로운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의학도들은 기증된 시신으로 실험도 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묘방도 찾아낸다. 그들이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에 감사하면서 줄 지어 분향을 할 때는 정말로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구나. 말없이 몸으로...' 죽은 자도 산 자를 살릴 수 있는데, 산 자가 산 자를 살리는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살아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기에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여,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자연을 살립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43

2013.10.27

초청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께 겸손히 응답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생애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를 위해 원천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 초청일 : 2013년 11월 17일(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제 5 차 작정밤기도회

- 기간 : 2013년 10월28일 -11월 1일
- 장소 : 종합교육실
- 시간 : 매일 저녁8시
- 주제 : 교회를 위해 무릎 꿇게 하소서!
첫째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사도행전20:24-28)
둘째날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가?(고린도전서2:1-5)
셋째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가?(에베소서4:11-12)
넷째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가?(빌립보서2:1-8)
다섯째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마태복음6:9-13)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광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